

“혼 담긴 무용수의 열정 영상으로 보여드려요”

광주대, 시립발레단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코로나19에 비대면 강의 활용 영상 연습실 찾아 발레리나의 하루 촬영 최태지 예술감독 직접 해설에 참여 6월 수시공연 직접 관람까지 이어져



광주대 박진영 교양교육원장, 최태지 예술감독 등이 광주시립발레단 무용수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과 함께 온라인 강의를 위한 ‘찾아가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눈길을 끈다.

이번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은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운영하게 되면서 문화예술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 모습을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온라인 콘텐츠는 교양과목 ‘열린인생론: 삶을 디자인하는 문화예술’ 시간에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대 관계자는 지난 1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시립발레단 연습실을 찾아 무대 뒤 연습 현장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촬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발레리나, 발레리나의 하루’를 주제로 무용수의 하루를 오전(기본클래스)과 오후(공연리허설)로 나누

어 살펴 보고, 공연이 완성되기까지 무대 뒤 무용수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

총 107분 분량의 영상은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 제작할 예정이며, 최태지 광주시립발레단장이 직접 해설을 맡았고 무용수 인터뷰 영상 등도 함께 담아 선보인다.

특히 강의는 무대 뒤 무용수의 열정적인 연습 장면을 보여주는 온라인 수업과 함께 오는 6월 4-5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 콘서트 #1’을 직접 관람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한편, 교양과목 ‘열린인생론: 삶을 디자인하는 문화예술’은 과목에 대표 교양강좌로 자리매김했으며, 매 학기마다 디자인·음악·무용·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전문 인사를 초청해 릴레이 특강방식으로 진행돼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대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과목이다”며 “향후 이 과목을 브랜드화해서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캠코, 남구 진월동에 ‘캠코브러리 24호점’ 개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6일 오후 4시 광주시 남구 진월동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서 캠코브러리 24호점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문성유 캠코 사장과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박홍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캠코브러리(KamcoBrary)는 캠코(Kamco)와 도서관(Library)의 합성어다. 2015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 환경 개선과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 내 노후 공간을 리모델링해 작은도서관을 마련해오고 있는 캠코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24호점은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 남구청, 대한적십자사와 협업체가 광주 남구청, 대한적십자사와 협업체가 공개모집을 거쳐 독서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선정했다. 캠코는 어린이 도서 약 500권을 기증했으며, 추후 2000권 이상 비치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책상과 의자, 컴퓨터 등도 구비했다.

이밖에 향후 5년간 도서 구입과 독서 지도, 문화체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 아동·청소년의 직장체험, 캠코 직원의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캠코브러리에서 다양한 책을 접하고 더 큰 꿈을 꾸면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정성과 재능을 지역사회에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건협 광주시회, 지역건설산업 발전 유공자 시상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김영주)는 지난 25일 광주 출리데인 호텔에서 지역건설산업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회원사 대표이사과 발주기관 관계자 등 지역건설산업 발전 유공자 25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건협 광주시회는 당초 지난 4월 29일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정기총회가 서면결의로 개최돼 수상자들만 별도로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진행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카인드 오브 블루’ 지미 코브 별세

역사상 최고의 재즈 음반 중 하나로 평가되는 ‘카인드 오브 블루’(Kind Of Blue)에 참여한 드러머 지미 코브가 91세로 숨졌다.

빌보드는 ‘카인드 오브 블루’ 참여 멤버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지미 코브가 폐암 투병을 해오다 미국 뉴욕 자택에서 지난 24일(현지시간) 사망했다고 25일 보도했다.

1929년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그는 유명 재즈 트럼펫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마일스 데이비스의 다수 음반에 세션으로 참여했다.

이 중 1959년 발표된 ‘카인드 오브 블루’는 총 400만 장 이상 팔리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판매된 재즈 앨범으로 기록됐다. 2019년 마지막 앨범인 ‘디스 아이 디그 오브 유’(This I Dig of You)를 내놨다.

연할뉴스

북구, 하나금융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사진)가 하나금융그룹과 협력해 진행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2018년부터 공동 추진해 온 사회공헌사업으로, 공보육 이용률을 제고하고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북구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국공립 태보어린이집을 보육수요가 늘어난 양산동으로 신축이전할 계획이다. 태보어린이집은 현재 신안동에 있

며, 1983년 준공한 노후화된 건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북구는하나금융그룹 지원금 21억원, 국·시비 8억원, 구비

1억원 등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태보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하고, 정원을 84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20주년 기획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람났다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끈대인턴(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야생여정	00 영혼수선공(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카봇 유니버스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빅스웃 55 뽀뽀모 두모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내모세모
①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교생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②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제25회 KBS 119상 시상식			00 뉴스브리핑
③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스페셜	
④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플 샐러드(재)	00 공부야 마녀? 스페셜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시노스톤 프리덤 30 꿀잼 영화가 좋다	00 5 MBC 뉴스 30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0매! 전라도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⑦	00 뉴스7 광주전남 40 오월애인연 3부작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었다 45 스마트한 마을이야기 스페셜
⑧	10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기막힌 유산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끈대인턴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⑩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더 라이브	00 영혼수선공	05 광주MBC 5.18 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이름도 남김없이	00 트롯신이 떴다
⑪	35 UHD 스포츠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도올학당 수다승철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⑫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영상앨범 선(재)	3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7:45 피피루 안전특공대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2:30 EBS 마스터	18:00 생방송 퓌!퓌!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00 EBS 다큐프라임	19:00 형사 가제트
07:45 로보가 폴리	13:50 EBS 초대석	19:30 최고다! 호기심딱지
08:00 덩동덩 유치원	14:40 마사와 곰	19:45 자이언트 팽TV
08:30 출동! 슈퍼왕스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20: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해와 해와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픽시	15:10 꼬마버스 타요(재)	<중국어식 방랑기-고성의 맛>
09:30 페파 피그	15:25 출동! 슈퍼왕스(재)	21:30 한국기행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낮선 마을에서 살아보게 3부 인생은 생방송>
10:30 한국기행(재)	16:10 픽시(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22:45 극한직업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0 덩동덩 유치원(재)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2:00 EBS 정오뉴스	17:00 EBS 뉴스	23:45 EBS 명강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20 개구쟁이 스머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7일(음 윤4월 5일 庚午) ☎ 010-9790-8237

<p>36년생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도다. 48년생 경험을 되살리려면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 60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분명해 있으니 잊지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72년생 멀리는 것이 무방하다. 84년생 일독일일 하리라. 96년생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5, 87</p>	<p>42년생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실행해도 무방하다. 54년생 가마솥의 콩도 삶아야 먹을 수 있다. 66년생 주변인들과의 조화와 상호부조가 절실하다. 78년생 무의식중에 쉽게 속을 수도 있는 날이다. 90년생 상대의 청이나 제안을 원대로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02년생 발단은 사소하지만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7, 85</p>
<p>37년생 도모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는 시기이다. 49년생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니 포기함이 낫겠다. 61년생 움직임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다. 73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날이다. 85년생 즉흥적이라면 다분히 오만의 소지가 있다. 97년생 금금에 왔던 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7, 55</p>	<p>31년생 내부적인 단속부터 잘 해두자. 43년생 인내는 곧 바람의 열쇠가 될 것이다. 55년생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니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 67년생 고집 관념에서 벗어나면 헤안이 생길 것이다. 79년생 치밀한 설계 못지않게 알찬 실행도 절실히 요청된다. 91년생 사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교로 판단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3, 86</p>
<p>38년생 너무나 크고 충격적인 일이라서 아무 경황이 없을 것이다. 50년생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만 삭여야 하는 장면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 62년생 불안전하다. 74년생 완전하게 고칠 필요가 있겠다. 86년생 오늘의 부실함은 미래에 약점의 발미를 제공한다. 98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소용이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86, 51</p>	<p>32년생 대책 마련으로 부실하게 된다. 44년생 힘들기는 하지만 거들어 주는 이도 있다. 56년생 발언하기가 꼭 속스러울 것이다. 68년생 어김없이 처리해야 한다. 80년생 부담이 따를지라도 차제에 보완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92년생 마음을 비우고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48, 77</p>
<p>39년생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51년생 대단한 김사가 펼쳐지면서 영예롭겠다. 63년생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오해할 수 있다. 75년생 근사치가 될 것이니 만족 할만 하도다. 87년생 의도적인 술수가 보인다. 99년생 가변성을 염두에 두라. 행운의 숫자 : 36, 94</p>	<p>33년생 상대의 숨은 의중은 따로 있느니라. 45년생 불평하다면 짐작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57년생 벌여 놓은 것 못지 않게 끌까지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69년생 우선, 자세히 살펴 본 후에 물어 보는 것이 낫다. 81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93년생 외란의 모습에 흔들리지 말고 든중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17, 80</p>
<p>40년생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으니 과감하게 차지해도 된다. 52년생 평상시에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64년생 상부상조 한다면 능률을 극대화한다. 76년생 관리를 잘 해두자. 88년생 비웠을 때 비로소 채울 수 있는 법이다. 00년생 일방적이라면 무리함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 22, 95</p>	<p>34년생 꼭 이행해야 할 바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보자. 46년생 내부 사정까지 살펴야 무리가 없겠다. 58년생 몰라도 될 일을 알게 되어 걱정하리라. 70년생 본격적인 판세라 할 만하니 앞뒤 가리지 말고 주마가변해야 한다. 82년생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94년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도다. 행운의 숫자 : 06, 89</p>
<p>41년생 현실적으로 실현 될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53년생 요건을 구비하는 데는 예로 사항도 보인다. 65년생 희망을 여는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다. 77년생 전혀 다른 양상으로 비화 되리라. 89년생 미리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말쑥의 소지를 잃을 수 있다. 01년생 뜨거운 화젯거리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2, 58</p>	<p>35년생 화려한 날씨가 개이고 뽕하고 해가 뜨리라. 47년생 현태에 집착하지 않고 훗날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 59년생 관점을 달리해보자. 71년생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83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는다. 95년생 책무를 다 하고 치분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다. 행운의 숫자 : 29, 78</p>